



아침나갈때 저녁들어올때 합장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인도에서 단타원자가 창을 들고 고기잡는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말라공주는 정대(頂戴) 머리카락 속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로 전수했다.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사진을 가정에 모신다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성전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아래 사진 두 종정스님은 대통령을 예방받는 아주 친견하기 어려운 종정스님을 친견하고 자문을 받아 아래글을 대신합니다. 특히 주한 스리랑카 대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밑운대종사님께서도 자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티사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아스기리 종정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밑운대종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두 종정



한·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방필석

한국불교도인 여러분들께,

한국불교도인과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 협의회 멤버들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리랑카, 캔디소재 'Sri DaladaMaligawa'에 안치되어 있는 불치사리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계의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모든 불교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 스리랑카의 대사로서 부처님의 치아탑 사진이 한국의 불교 가정과 사찰에 모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니 매우 기쁘며 한국에서 불치사진이 사찰과 가정에 장식됨으로써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에게는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질 것임을 불교국가의 대사로서 이 또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스리랑카와 한국의 불자의 상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티사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모시는 공덕

부처님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이 매우 성스럽게 여기며 신성시하는 성물로서 모시는 사람이 그 나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전설 때문에 왕권투쟁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성스럽고 위대한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셔놓은 성전을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는 것조차 국민급인사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치 사리탑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인연공덕을 쌓은 분에게만 허락되었다. 불치사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엄한 경호하에 두 분의 종정스님과 정부관리자로 불치성장관급으로 따로 임명되어 있다.

이 거룩한 치아 사리탑 액자를 누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에서 각 가정에 모셔놓고 정성과 뜻을 새겨 모신다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과 똑 같으며 무명 중생을 깨우쳐주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고 뜻한바 소원성취는 물론 7대 죄업이 소멸되며 자손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병고도 없이 잘 살 것이며, 밝은 지혜를 깨우쳐주고 내일의 일을 예시해 주어 자비심이 생겨 이기고 지는 마음을 버리고 자아를 깨우쳐주어 복과 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하여 세계의 불도 순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모여들고 있다. 석가모니치아사리탑 액자를 가정에 모시는 공덕으로 매년 스리랑카 페라헤라 축제 때 초청장을 받을 수 있고 친견하는데 국민급 VIP대접을 받고 방문시 대사관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현지에 가서 직접 친견하고 온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에게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 줄 것입니다.

한·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방필석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

잘될 사람이 보는 전화번호 문의 : 02)739-8259